



지속가능금융과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

캐롤라인 벨러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총국 지속가능금융국 부국장

2021년 1월

유럽연합 의제: 지속가능금융

유럽연합 정책

- 2018 년 3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수립
 - 지속가능투자로의 자본 유입 촉진
 - 위기관리시 지속가능성의 주류화
 - 투명성과 장기주의 (long-termism) 촉진
- 2020년 9월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기후목표 상향 조정



2030년까지 5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2021년 1분기: 지속가능금융 전략 개편

- 1 분류체계
- 2 표준 및 인증제도
- 3 지속가능 사업에 대한 투자 촉진
- 4 재정자문시 지속가능성 포함
- 5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 6 평가시 지속가능성
- 7 FMP에 의한 공시
- 8 건전성 요구사항에 지속가능성 포함
- 9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 10 지속가능한 기업 거버넌스 및 장기주의



CAPITAL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011-2020년 기간에 비해 매년 3천5백억 유로를 추가 투자해야 함 (에너지 관련 투자)



녹색전환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모두에게 제공하도록, 실질 경제 및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시민들에게로도 관심을 돌림

유럽연합 의제 - 유럽연합 분류체계 (EU Taxonomy)



유럽연합의 정책: EU Taxonomy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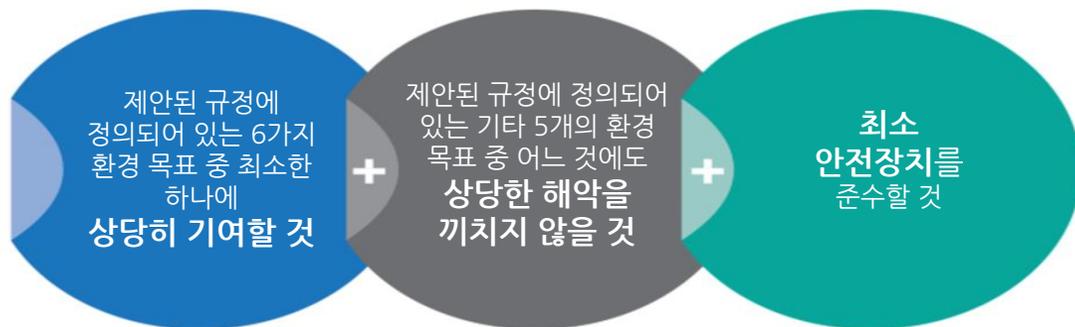
- 투자자와 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투자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분류수단**의 제공
- 파리협약에 의한 기후중립을 포함하여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과학에 기반하며 야심찬** 분류체계가 요구됨

적용: 의무사항여부

- 금융시장참여자를 위한 의무 공시
- 비재무정보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공시 (총매출량의 % 또는 CAPEX/OPEX의 %)
- 유럽연합 회원국 및 유럽연합은 녹색금융상품과 회사채를 위한 공공인증제도를 수립할 때 유럽연합 분류체계를 사용해야 함

녹색분류체계란?

엄격한 방법론에 기반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목록으로, 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은 아래의 선정 기준을 따름



*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규약을 준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평가
-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 목록
- 투자의 금융 성과에 대한 판단을 제공
- 변경할 수 없거나 고정된 체계라는 것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



목적

- 2030년까지 파리협약의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9조 달러의 인프라시설 투자가 요구됨 (2018년 OECD 전망)
- 파리협약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기후회복력있는 발전을 위한 재정을 조성할 것에 동의 (파리협약 제 2,1,c 조)
- 더 나은 친환경적 재건과 보다 회복력 있는 경제로의 복귀를 위해 국제적 사적자본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황

- 기후 금융은 상당히 성장하였으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수준과는 격차가 큼
- 연간 녹색채권 발행은 2천5백억 달러 수준에 달함 => 전 세계 채권 발행의 3.5%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

과제

- 녹색투자 (분류체계) 에 대한 일관적인 정의가 부재하고 표준화와 투명성 수준이 낮아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금융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개발을 시작하고 있으나, 각 국의 환경 우선순위, 지역적 요구 및 시장발달 수준을 반영해야 함

=> 개별 정책들은 전 세계 차원의 실질적인 전환을 위한 재정 조성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해결방안

- 전 세계적 투자자들이 녹색투자기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접근법을 조정하고 및 일관성 있는 지속가능금융 정책과 수단을 개발
- 이를 위해 유럽연합과 관련 공공기관들이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IPSF)**을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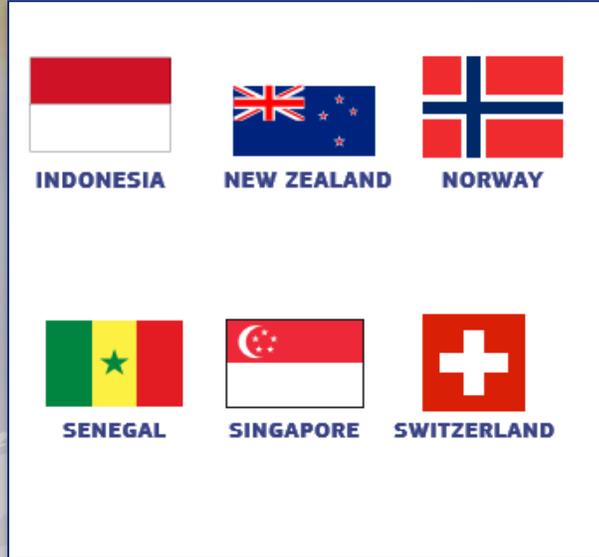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

회원국

창립시 (2019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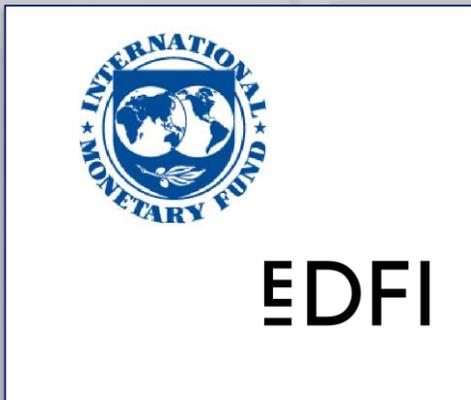


창립 이후



- 전 세계 GHG 배출량의 50%
- 전 세계 GDP의 45%
- 전 세계 인구의 50%

참관기관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은

'파리협약의 준수' 그리고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IPSF는 지속가능금융 관련 대화를 위한 다자간 포럼입니다.

IPSF는 투자자들이 기후와 환경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투자기회를 인식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PSF는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통합 시장을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국경을 넘어 녹색자본유입을 촉진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금융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

목적



전 세계 차원에서 사적자본의 친환경
지속가능금융 참여를 촉진



친환경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통합시장의 확대

교류 및 확산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정보 교류

비교 및 현황 인식

친환경 지속가능금융 확산을 위한
이니셔티브 비교 및 관련 과제와 기회 분석

협력 강화

친환경 지속가능금융 관련 국제협력 강화,
관심 있는 회원국들이 관련 이니셔티브와
접근법을 활용하도록 지원

핵심 활동영역

- 녹색분류체계(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분류 등)
- 녹색금융상품의 기준 및 인증
-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공개

투자자들이 환경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투자기회를 인식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핵심이 되는 조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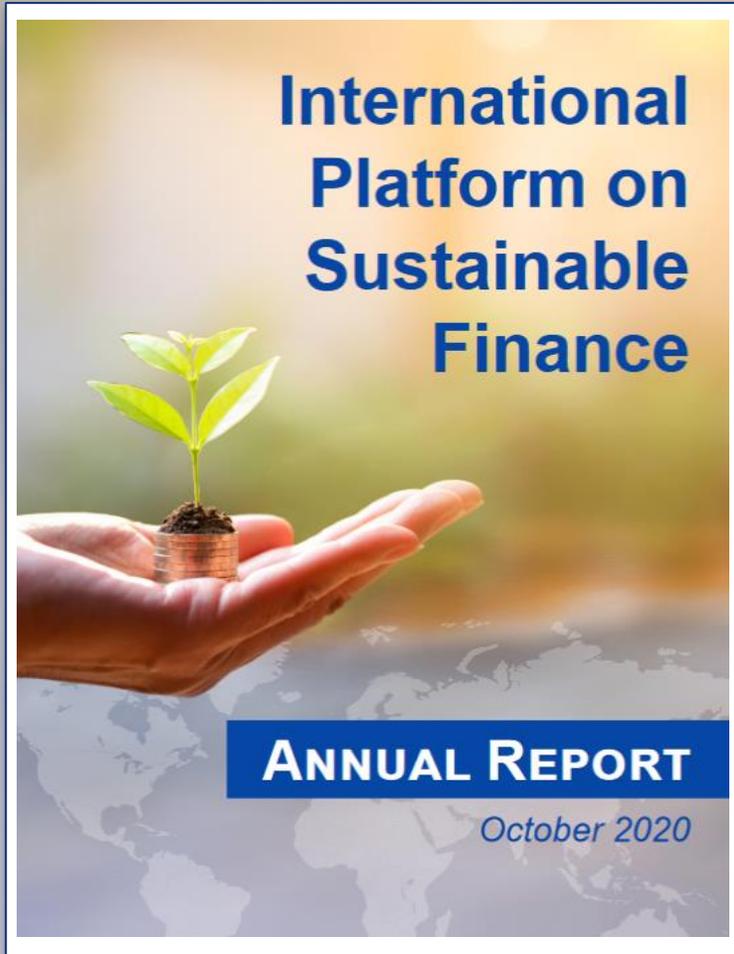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

 IPSF 란	 IPSF에 대한 오해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포럼	제도화된 기구가 아니며, 회원국에 국내법 혹은 국제법에 따른 어떠한 구속력, 법적, 재정적 의무도 부여하지 않음
국가 및 지역적 맥락을 존중하면서 친환경 지속가능금융 관련 이니셔티브와 접근법을 상호 비교하고 조정	국제적인 표준을 수립하지 않으며, 회원국에게 타 회원국이 수립한 친환경 지속가능금융 관련 지침이나 접근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지 않음
재정/경제부, 중앙은행, 감독규제기관 등 친환경 지속가능금융 정책과 이니셔티브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포럼	친환경 지속가능금융 사업여부와 무관하게 민간 기업 을 위한 포럼이 아님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

연례보고서 발행



- 녹색분류체계 (Green Taxonomies) 개발은 초기단계이지만, 확산잠재력은 큼
 - ⇒ **분류체계 작업반**: 유럽연합 회원국 내 친환경 활동들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경을 초월하여 녹색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공통의 분류체계** 작성
-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그린워싱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 상품을 위한 표준 및 인증제도를 개발하고 있음
- 최근 환경관련공시 제도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음. 그럼에도 공개된 정보의 질과 비교가능성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
 - ⇒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제도 작업반**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



지원방법

친환경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정책 수립과 국제협력 강화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이라면 IPSF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IPSF 사무국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메일: fisma.ipsf@ec.europa.eu

함께 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https://europa.eu/!DV48WT>





지속가능금융 및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

Thank you for your attention